



손흥민 연일 몸살... 명예 회복 나선다

EPL 31R서 인종차별·할리우드 액션 논란
에버턴전 한 시즌 최다골 '10-10클럽' 도전

경기 중 '할리우드 액션' 논란과 인종 차별 피해로 연일 몸살을 앓은 손흥민(29·토트넘)이 명예 회복에 나선다. 손흥민은 소속팀 토트넘은 17일 오전 4시(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에버턴과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최근 정규리그 두 경기에서 무승(1무 1패)에 그친 토트넘은 현재 7위(승점 49)에 머물고 있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마지막인 4위 웨스트햄(승점 55)과는 승점 차가 6으로 벌어졌다. 리그 종료까지 7경기만을 남겨둔 토트넘은 여유를 부릴

새가 없다. 특히 에버턴은 현재 바로 아래인 8위(승점 48)에 있어, 이번에 지면 토트넘의 순위는 더 추락할 수 있다. 토트넘은 직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전에서 팀 내 유일하게 득점을 올린 손흥민의 발끝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건다. 손흥민은 12일 맨유전에서 2개월여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 리그 14호 골로 프로 데뷔 후 자신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 골 타이 기록을 작성했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4골 9도움(공식전 19골 16도움)을 올린 그가 에버턴의 골망을 흔들면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쓴다.

도움을 작성할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EPL '10-10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오랜만에 골 맛을 보기는 했지만, 맨유전은 손흥민에게 득보다 실이 많은 경기였다. 경기 중 스코트 맥토미니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맨유의 골 취소가 유동했는데, 얼굴을 맞고 쓰러진 손흥민이 과도한 연기를 펼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문제를 두고 양 팀 감독이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며칠이 지나도록 해설위원 등 축구 전문가와 선수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부 맨유 팬들은 손흥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DVD나 팔아라", "다이빙을 멈추고 돌아가서 고양이 박쥐, 개나 먹어라"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다. 게다가 토트넘은 이날 손흥민의 선

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3으로 졌다. 경기 뒤 손흥민은 "슬픈 날이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슬프고 속상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가라앉는 분위기 속에 토트넘을 둘러싸고 손흥민의 '단짝'인 해리 케인의 이적설, 조제 모리뉴 감독의 경질설까지 흘러나온다. 팀도, 손흥민도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손흥민은 지난 경기의 아픔을 털어내고 해결사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구단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 그는 활짝 웃는 얼굴로 동료들과 훈련을 소화했다. 토트넘은 최근 에버턴과 2경기(EPL 1·FA컵 1)에서 모두 패했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나쁘지 않았다. 그는 올해 2월 11일 FA컵 5라운드에서 '도움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에버턴과 총 8차례 맞대결에서 3골 6도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15일 열린 프로배구 챔피언결정 4차전에서 대한항공의 요스바니가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한국시간) 열린 UCL 8강 2차전에서 리버풀의 아놀드가 슈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성남 '창과 방패' 격돌

18일 K리그1 10R서 맞대결
제주Utd, 자존심 회복 도전

'화공(화끈한 공격)'을 앞세워 프로축구 K리그1 개막 이후 9경기 무패를 달리는 전북 현대와 4골밖에 내주지 않은 성남 FC가 이번 주말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인다. 전북과 성남은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1 10라운드에서 격돌한다. 전북은 이번 시즌 K리그1 개막 이후 9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7승 2무를 거둬 승점 23으로 단독 선두에 올라 있다. 특히 1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9라운드에서 무려 5-0 대승을 거둔 것을 포함해 최근 3경기에서 11골을 몰아넣어 이번 시즌 키워드로 내세운 '화공'에 걸맞은 공격력을 뽐내고 있다. 9경기 득점이 22골, 경기당 2골이 넘는다. 맞서는 성남은 이번 시즌 리그 최소 실점 팀이다. 9경기 동안 4실점밖에 하지 않은 '잠물 수비'에 힘입어 4승 3무 2패(승점 15)를 쌓아 리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리백을 축으로 한 수비벽에 베테랑 골키퍼 김영광의 선방도 든든하다. 연합뉴스

그러나 성남은 득점도 7골로 리그 최하위권에 해당해 전북의 거센 공격을 버텨내는 것만큼이나 골문을 여는 것도 큰 도전이다.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인 4골을 책임진 장신 공격수 물리치가 10일 광주 FC와의 9라운드에서 골을 터뜨린 뒤 유니폼 상의를 벗어던져 경교 누적으로 퇴장당한 공백이 뼈아프다. 6승 2무 1패(승점 20)로 전북에 이어 2위에 오른 울산은 18일 오후 2시부터 수원 삼성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6라운드에서 대구 FC에 밀릴까 우려 시즌 첫 패배를 당한 뒤 3연승으로 반등에 성공한 울산은 우승 경쟁의 첫 고비가 될 21일 전북과의 11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전북, 울산, 성남에 이어 4위(승점 12·11득점)인 FC 서울은 17일 대구와 홈 경기를 준비한다. 서울은 최근 리그에서 3연패에 빠진 것에 더해 14일 대한축구협회(FA)컵 3라운드에서 K리그2 팀 서울 이랜드에 0-1로 져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주중 FA컵 3라운드에서 2부리그 팀에 져 자존심을 구긴 인천과 제주 유나이티드는 같은 날 맞대결에서 명예 회복을 바란다. 연합뉴스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대진 완성

PSG-맨시티·R마드리드-첼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리버풀(잉글랜드)을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에 안착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5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이날 7일 열린 1차전에서 3-1로 이겨 우위를 점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1최종 합계 3-1로 4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날 다득점 승리가 필요했던 리버풀은 초반부터 공세를 퍼부었지만,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선방에 막히면서 골문을 열지 못했다.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잉글랜드)

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1, 2차전에서 연달아 격파하며 2015-2016 시즌 이후 5년 만에 4강에 올랐다. 맨시티는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에서 열린 8강 2차전에서 리아드 마흐레즈와 필 포든의 득점포를 앞세워 2-1로 이겼다. 1차전에서도 2-1로 앞선 맨시티는 합계 4-2로 도르트문트를 꺾었다. 선제골을 전반 15분 도르트문트의 벨링엄이 뽑아냈지만 맨시티는 후반 10분, 30분에 골을 몰아치며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UCL 4강 대진이 확정됐다. 맨시티는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잉글랜드)와 격돌한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챔프전 승부 원점으로

내일 최종 5차전서 결정

대한항공이 챔피언결정전 승부를 최종 5차전으로 끌고 갔다. '토종 라이트 임동혁·외국인 레프트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등록명 요스바니) 카드'를 꺼낸 대한항공은 '구단 첫 통합우승' 가능성을 되살렸다. 대한항공은 15일 서울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우리카드를 세트 스코어 3-0(25-23 25-19 25-19)으로 꺾었다. 1, 3차전을 우리카드에 내준 대한항공은 2차전에 이어 4차전을 따내며 5전 3승제의 챔피언결정전을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다. 양 팀은 16일 하루 쉬고, 17일 정규리그 1위 대한항공의 홈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5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1승 2패로 벼랑 끝에 몰린 대한항공은 라이트 요스바니, 레프트 정지석·박승석 조합 대신 라이트 임동혁, 레프트 요스바니·정지석 카드를 꺼냈다. 우리카드는 경기 직전, 알렉스가 구토를 동반한 복통을 앓는 악재를 맞았다. 알렉스는 1세트 코트에 들어섰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1세트 23-24에서는 서브 범실까지 했다. 신영철 감독은 2세트부터는 알렉스 없이 토종 선수로만 경기를 치렀다. 나경복(16점·공격 성공률 48.14%), 한성정(12점·52.17%)이 분전했지만, 알렉스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우리카드는 허무하게 1세트를 내줬다. 2세트부터는 점진조차 벌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3세트 초반에 사실상 4차전 승부를 결정지었고,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은 선수들을 독려했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특허 제10-2078975호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서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서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받은 바림판 토출구로 인해 사각지대 최소화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